

2011.04.25 미래정책연구실

□ 세계은행, 식량파동 경고

1. FinancialTimes(2011.04.14), Telegraph(2011.04.14), The World Bank(2011.04.15)
주요 내용 종합

-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4월 14일~15일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량가격 급등이 세계 빈곤층에 대한 최대 위협” 이라고 언급함.
- 또한, 당일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식량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성명서(Communiqué)의 주요 의제 중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관련 내용

- 국제기구들이 제출한 식량 및 농산물 가격의 과도한 불안정성과 이러한 불안정성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시키는 수단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권고 사항을 제출할 것을 기대
- 원자재 파생시장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현물과 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감독당국의 사전적 포지션 제한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정형화된 포지션 관리를 통하여 시장 남용 및 왜곡에 대응하는 최종적인 정책권고안을 9월까지 마련할 것을 합의

자료: Wall street journal, “Communiqué”(Meeting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Washington DC, 14-15 April 2011).

- 최근 발표된 「Food Price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식량 가격 지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0년 6월~2011년 1월까지 국제 밀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상승, 옥수수 가격도 전년 동기대비 73% 상승하는 등 최근 주요

곡물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현재 국제 곡물가격은 2008년 글로벌 식량 위기 당시 최고가격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극적인 전환의 순간(tipping point)에 머물러 있다고 세계은행 총재는 밝힘.
-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4,400만 명이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는 극빈층으로 추락했으며, 향후 식량가격이 10% 상승하면 1,000만명, 30% 상승하면 3,400만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밝힘.
- 이러한 빈곤층의 수치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가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보여줌.
- 세계은행 총재는 일부 국가들의 곡물 수출금지조치로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또한, 곡물 수출금지를 차단하고, 세계 식량 프로그램(World Food Programme)처럼 인도적 차원의 식량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아울러 세계은행은 종자, 관개 및 하수시설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FAO와 함께 해외농업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사회적 혼란은 급등한 식량가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튀니지에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2. 시사점

- 곡물 파동 위기시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은 제기되나 세계 식량안보와 곡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